



살고싶은행복도시 서구

서구신문

THE SEO-GU NEWS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단기 4349년 (음력 5월 20일)



QR코드

제210호 발행 | 부산광역시 서구

news.bsseogu.go.kr

1997년 1월 23일 창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심장부 서구에서 이를 주제로 한 독특한 콘셉트의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피란수도 부산 夜行'이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성황리에 개최돼 부산의 역사와 그 가치를 새롭게 했다는 호평을 받았다(사진은 개막축하 공연 모습).

‘피란수도 부산 夜行’ 8만 인파 성황

“부산의 역사·가치 재발견” ... 9월 30일~10월 2일 하반기 행사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처음 개최된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8만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3일과 4일 당시 임시수도 정부청사(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와 대통령관저(현 임시수도기념관), 임시수도기념거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서구 주최, 동아대 석당박물관·서구문화원 주관, 문화재청·부산시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 임시수도 정

부청사와 대통령관저 등 관련 시설들이 사상 처음으로 밤 11시까지 개방됐고, 임시수도기념거리에는 피란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다. 방문객들은 그 곳에서 그 시절의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고, 노래를 듣고, 당시 시대상을 담아낸 창작 뮤지컬 ‘검정고무신’과 임응식사진전을 감상했다. 또 대표적인 피란민 이주지역인 비석문화마을과 산복도로의 야경을 둘러보았고 부산전차 탑승, 검정고무신 꾸미기, 빠라춤 등 다양한 체험 행사에도 참여했다. 방문객들은 노년층에게는 당시를 추억하게 하는, 청

소년들과 중·장년층에게는 그 시절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들쭉날쭉인 6월 4일 임시수도 정부청사와 대통령관저, 비석문화마을 등 행사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렸을 뿐 아니라 부산만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당시 건축물과 문화자산을 활용해 되살려냄으로써 우리 문화재청의 사업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역사책

속에 잠들어있던 피란수도 부산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을 심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하면서 “이번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사 기간을 3일로 확대하고 내용도 더욱 알차게 준비해 부산의 대표 관광콘텐츠로 만들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064)

<관련기사 5·6·7·10면>

주요지면

5 이슈&사람 정은우 석당박물관장

6.7 특집 ‘피란수도 부산 夜行’ 이모저모

8.9 특집 송도해수욕장 개장

내년 '구세 200억 시대' 만들자

세정 TF팀 구성, 신세원 발굴 등 재정 확충 총력

서구가 내년 '구세 200억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세정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신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서구의 구세 수입은 총 153억9천800여 만 원으로, 이는 당초 목표 146억8천700만 원을 4.8% 초과달성한 것이며 매년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말 기준 9.12%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가 갈수록 늘어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풀어나기로 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하고 신세원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지방세연구회팀, 비과세감면팀, 세원발굴팀, 체납세외합동팀 등 4개팀으로 세정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연구회팀은 지방세 관계법령을 연구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비과세감면팀은 취득세 및 재산세 세원 관리와 비과세·감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세원발굴팀은 신세원 발굴과 세무조사기법 개발, 과세표준 개선 등을, 체납세외합동팀은 정보 공유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체납정리와 체납정리기동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세정TF팀은 특히 신세원 발굴을 위해 연구과제를 종교단체 등의 지방세 감면 축소와 신축 종교 관련시설의 과세여부 등으로 정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5월에는 서울·밀양·통영·제주 등지에서 종교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 수집과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다.

서구는 또 고질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실태조사,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은행계좌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속적·안정적인 자주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국·시비 못지않게 구세 발굴이 중요하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의 과세 전환과 신세원 발굴 등 구 세입 증대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내년 구세 200억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세무과 240-4182)

정완용·류선헬 주무관

'이달의 친절직원' 선정



정완용 주무관 류선헬 주무관

서구청은 '이달의 친절직원'에 정완용(건설과)·류선헬(토지관리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정완용 주무관은 하수관 정비공사 뒤 수도계량기에 물이 차오른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즉시 현장을 확인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류선헬 주무관은 민원인이 문의한 다른 부서의 민원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확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했다. (문의 민원봉사과 240-4262)

서구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잇따라

농협은행 대신동지점 200만 원 등

민관협력으로 설립된 (재)부산 서구장학회(이사장 홍인길)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서구장학회에 따르면 농협은행 대신동지점(지점장 김성우)이 200만 원을, 남부민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호선)와 ㈜지윤산업개발(대표 이미자)이 각각 100만 원씩을 장학기금으로 쾌적



김성우 지점장



이호선 위원장



이미자 대표

했다. 이로써 서구장학회의 장학기금은 총 20억3천900만 원(서구청 출연금 11억6천만 원 포함)으로 늘었다. (문의 부산서구장학회 240-4043)

오토바이 노상적치 사라진다

판매·수리업소 자진정비로 큰 성과

인도와 차도를 점령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오토바이 노상적치가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소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구는 무분별한 오토바이 노상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을 자진정비기간으로, 6월부터 9월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을 다같이 만들어가자'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전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했다. 구청의 이같은 적극적인 노력에 호

응해 부산 중·서구 오토바이업자회(회장 김윤영)가 집중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자진정비에 나서 업소 주변의 오토바이 노상적치가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영 회장은 "우리 업자회 차원에서 노상적치 근절에 앞장서겠다. 이같은 분위기가 부산시 전체로 확산돼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총괄과 240-4744)

7월 무료법률상담 쉽니다

제121·122회 서구미래아카데미

■ 참가대상 : 누구나

■ 문의 : 총무과 240-4041~2

'행복한 세계 감성여행'



김재열

- 일시 : 7월 14일(목) 16:00~17:30
- 장소 :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4층)
- 강사 : 김재열 (세계여행 스토리텔러, 미술평론가)
- ▷약력 : 법무연수원 글로벌 인재경영원 교수 How to-travel 연구소장 비전코리아 29(주) "아낌없이 주는 그림" 미술캠페인 국제관장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관리'



이종화

- 일시 : 7월 28일(목) 16:00~17:30
- 장소 :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4층)
- 강사 : 이종화 (동아대병원 스포츠의학센터 소장)
- ▷약력 : 부산대학교 의학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임상통증학회,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등 다수 학회 활동

서구신문 1997년 1월 23일 창간

발행 부산광역시 서구 / 편집 문화관광과 인쇄 부산일보사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Tel. 051-240-4074 / Fax. 051-240-4069

서구청 홈페이지 www.bsseogu.go.kr

모바일홈페이지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왼쪽 마크를 스캔하면 서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해 민원안내, 생활정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걸으며 만나요, 서구 숨은 이야기

원도심 스토리투어 '공동어시장...' 6월부터 운영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 부산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서구를 직접 걸으면서 구석구석 숨은 역사와 풍광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원도심 스토리투어가 6월부터 운영된다.

원도심 스토리투어는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원도심지역의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개발한 팸투어 형식의 관광상품이다. 그동안 △1코스 영도다리 건너 깡깡이길을 걷다 △2코스 용두산 올라 부산포를 바라보다 △3코스 이바구길을 걷다 △4코스 국제시장 기웃거리다 △5코스 흰여울마을 만나(영도구) 등 5개 코스로 운영돼왔다.

서구 스토리투어는 '공동어시장, 남향을 품다'라는 타이틀로 신규 개발된 6코스로 서구청에서 출발해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충무동 적산가옥-충무동 새벽·해안시장-부산공동어시장-남향 백등대 등에서 진행된다.

코스 가운데 서구청은 일제강점기에

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동장 겸용 공원인 대정공원이 자리했던 곳으로 야구·정구·스모 등이 개최됐으며,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은 1932년 건립된 남선전기(한전 전신) 사옥으로 부산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또 부산공동어시장은 국내 최대 산지 어류 공판장으로 우리나라 고등어의 75%(2015년 말 기준)를 위판하고 있다. 이번 투어에서는 이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야기 할매·할배'로 불리는 문화해설사들이 관광객들과 함께 걸으며 재미있게 풀어내 일반 관광지에서는 맛볼 수 없는 원도심 스토리투어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이번 투어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되며, 10명 이상 단체 신청 시 주중 수시투어도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나 전화(780-217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문화관광과 240-4082)



이륜차 등록 및 취득세 신고

6월부터 원스톱 처리 서비스

서구는 정부3.0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등록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이륜차 등록을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용신고서 접수와 함께 번호판대금 고지서를 수령하고 다시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납부서를 받아 인지세와 함께 금융기관에 납부한 뒤 교통행정과에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번호판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번호판대금 고지서는 물론 취득세 납부서 발급업무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관내 이륜차 등록 건수는 하루 평균 8~9건, 월 평균 170여 건에 달한다.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행정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교통행정과 240-4525)

전통시장도 카드결제시대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상인 교육



올해 추석 무렵부터 충무동 새벽시장과 해안시장에서도 신용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육성사업단은 카드단말기 보급률 80% 달성이라는 프로젝트 아래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결제시스템 활용 교육(사진)'에 들어갔다. 이번 교육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상인들에게는 신용카드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김남철 충무동해안시장상인회 회장은 “카드결제 시스템이 없어서 손님을 놓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충무동 새벽·해안시장 육성사업단 244-3556)

청소년문화의 집, 지역거점 선정

중학생 항공 우주 직업체험 지원

서구 청소년문화의집이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공모한 '2016년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거점 기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6월 2일 센터 측과 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진로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에비에이션에서 항공 우주와 관련한 직업체험의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항공기 제조현장과 모의비

행 체험,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실험·실습 등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항공 우주 관련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와 관련해 오는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부산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35명)를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happy_youth@hanmail.net)이나 전화(240-6652)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또 자원봉사활동 실시,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교육 등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6658)

불연성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 불연성 쓰레기 : 조개껍질, 유리, 사기그릇, 곰뻐, 형광등·백열등 전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배출 방법
 - 일반주택 및 상가 : 대문(출입구) 앞
 - 공동주택 : 쓰레기 공동집적소
 - ※ 일반용 종량제 마대(노란색 20L)에 따로 담아 매주 목요일 저녁 배출
- 문의 : 청소행정과(240-4432)

폐건전지 집중수거 안내

- 다 쓴 건전지를 분리배출하면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건전지는 가까운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 집중수거 기간 : 2016. 4. ~11.
- 수거 장소
 - 일반주택 : 가까운 동 주민센터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내 폐건전지 수거함 가까운 동 주민센터
- 문의 : 청소행정과(240-4452)

'효' 사관학교 17기 교육생 모집

- 모집 대상 : 시민 누구나
- 교육 기간 : 2016. 9. 7. ~11. 4. (주 2회, 1일 4시간) ※ 1급 '효' 지도사 자격증 취득
- 교육 장소 : 부산진구 부암동 온병원 지하 대강당
- 접수 기간 : 2016. 6. 30. ~8. 24.
- 접수 장소 : (사) '효' 문화지원본부(양정동) ※ 입학원서대 30,000원(교재비·교육비 무료)
- 문의 : (사) '효' 문화지원본부(070-4153-7902)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6건도 심의·의결

서구의회(의장 류차열)는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지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정례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석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계기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도시인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석희 의원, 부위원장에는 배은주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운영기획위원회(위원장 정진영)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다. 또 자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모습.

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상조)에서 심사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됐고, △서구 송도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됐다.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

로 채택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송상조·정진영·이정향·김영전·배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아래 기사 참조)

로 채택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송상조·정진영·이정향·김영전·배은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졌다. (아래 기사 참조)

송도구름산책로 개장식 등 참석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6월 1일 열린 송도해수욕장 및 송도구름산책로 잔교구간 개장식에 참석했다. 의원들은 개장식이 끝난 뒤 주민들과 함께 송도구름산책로를 걸었다.

푸른유치원, 서구의회 체험



남부민동 푸른유치원생 40여 명은 지난 6월 9일 서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서구의회 체험교실에 참가했다.

5분 자유발언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가 최적지



송상조 의원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평가항목에서 고정 장애물이 제외됐다는 사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 용역사에 용역을 맡겨 놓고 용역 진행 과정을 간섭할 수 없다며 뒷집을 지고 있다. 정말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공항 입지 선정은 소음과 장애물의 간섭을 받지 않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가덕도로 선정되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염원한다.

견고 싶은 '사람 중심' 도로정책 시행을



정진영 의원

기존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은 우리 서구에 방문객을 머물게 할 수 없다. 차로가 확장되면 이동은 빨라지겠지만 견고 싶은 거리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의 도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행자 도로를 넓혀서 견고 싶은 거리를 만들자.

도시 재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은 심각하게 방치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내걸렸던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철거되는 현수막과 함께 슬그머니 풍자를 감춘다. 우리 서구는 이 분들을 위해 과연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서구 교통행정 대책 촉구



이정향 의원

송도해수욕장의 우회도로 및 주차장 추가 설치 필요하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우회도로망 구축과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강구하자.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을 통해 원래

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단속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만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노상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 전환



김영전 의원

서구 관내 노상주차장을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올해 초 실시한 주거지주차 실명제로 양체 주차가 많이 사라졌으며 이웃간 주차 다툼 문제 해소에도 기여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부착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부정주차 요금제도 도입을 검토하자.

어린이·청소년 위한 정책 마련을



배은주 의원

우리 서구의 어린이 및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면 2개의 정책과제와 9개 세부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적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0.58%에 불과하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아동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가치를 염두에 두자. 서구의회가 함께 하겠다.

“피란수도 부산, 시민 자긍심 되게 할 것”

이슈 & 사람

정은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

‘피란수도 부산’ 용어·가치 홍보 큰 성과
체험행사, 재료 떨어질 정도로 높은 인기
하반기행사, 부산 독자콘텐츠 활용 진행



서구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군기자가 바라본 한국전쟁과 피란수도 부산의 모습은 나이 드신 분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 이에게는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 주제에 걸맞은 다양한 체험행사도 눈에 띄는데.
▲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피란수도 부산을 알리는 가장 적합한 행사이다. 특히 임시수도기념관 마당에서 진행된, 지금의 아이들에게 낯선 검정고무신 꾸미기와 빠리쭈기 등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았다. 또한 석당박물관에서 진행한 체험행사는 야행이라는 주제와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다양성을 도모했다. 체험행사들은 재료가 떨어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는데 체험의 중요성은 물론 시민들이 원하는 바와 하반기 체험행사의 방향성을 측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 이번 행사의 성과 혹은 기대효과?
▲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전쟁이라는 단어가 일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며,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잠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생각된다. 한국전쟁이 암울했던 과거의 역사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부산은 당시 희망의 도시였고, 이는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하반기에도 행사가 열린다. 계획은?
▲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유지 또는 확대시키고, 미흡했던 점은 개선하고자 한다. 특히 임시수도기념거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재현하고, 아트마켓과 체험행사도 더 다양하게, 그리고 부산만의 독자적 콘텐츠를 활용해 제작하고자 한다. 특히 부산시민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 좋은 추억을 갖게 하고, 앞으로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되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키고 싶다.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간 개최된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이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무려 8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구청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정은우 관장은 “피란수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성과 당시 임시수도 정부청사(현 석당박물관), 임시수도 대통령관저(현 임시수도기념관), 임시수도기념거리, 피란민 이주지역인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이번 행사의 성과를 설명했다. 또 “서구청과 석당박물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두 기관의 직원들이 합심해 열정적으로 행사를 치러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관장을 만나 이번 행사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우천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성황을 이루었다. 어떤 점이 어필했다고 보시는지?

▲ 한국전쟁과 관련된, 잊혀졌던 부산의 역사를 주제로 원도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과 이를 공연이나 전시, 피란시절 음식체험을 비롯한 각종 체험행사 등 문화와 접목해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어필한 것 같다. 여타 축제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콘텐츠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색다르게 다가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번 행사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용어와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피란수도라는 이미지가 어둡고 슬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감동적이고 밝은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부산이라는 도시가 한국전쟁 당시 사람들의 만남과 행복, 새로운 서구 문화의 수용과 가치를 전해주는 창구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싶었다.

–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행사는?

▲ 창작 뮤지컬 ‘검정고무신’, 임응식사진전, 각종 체험행사, 헌병 교대식 퍼포먼스, 문화해설사 역사 투어, 부산전차 탑승, 비석문화마을 야경 조망 등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과 호응도가 고르게 높았다. 야행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보고, 걷고, 참여하고, 감상하고, 느껴보는 시간이 모두 충족됐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됐다.

– 임응식사진전 등 전시행사도 매우 반응이 좋았다.

▲ 임응식 작가는 종군기자로서 전쟁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따뜻한 감성으로 전달했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전달하고자 노력했던 작가였다. 이는 전쟁을 바라보는 임응식 작가의 시선이기도 했으며 그가 부산

대한민국이 당신의 사업에 힘이 되도록

2016 Census 경제총조사

조사 기간

2016. 6. 7. ~ 7. 22.

※ 인터넷조사: 2016. 6. 7. ~ 6. 30. (24일간)

조사 대상

조사기준일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체

조사 항목

총 41개(공통항목 16개, 특성항목 25개)

조사 방법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미응답 가구)

문의: 기획감사실 (240-4031)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정부지원과 함께 대비하세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험료의 절반 이상(55~92%) 정부 지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줍니다.

가족의 행복까지 생각하는 풍수해보험

가 인 서구청 안전총괄과(240-4645)
문 의 각 동 주민센터
민간보험사(02-2100-5103~7)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설치 대상: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관 등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
- 설치 기한: 2017. 2. 4.
- 설치 기준
 - 소화기: 세대별·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 구입처: 인터넷, 할인점,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 문의: 지방소방관서



“‘피란수도 부산’ 처음 알았어요”

창작뮤지컬·사진전·역사투어·각종 체험행사… 피란시절 ‘생생’

지난 6월 3일과 4일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60여 년 전 과거로 되돌아갔다. 때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18일부터 1953년 8월 14일까지, 장소는 당시 대한민국 임시수도였던 부산, 그 중에서도 정부청사와 대통령관저가 위치했던 부민동과 피란민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원이다. 서구청이 주최한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의 현장이다.

방문객들은 이날 격동의 현대사가 펼쳐졌던 당시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으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피란민들의 생활상과 애환을 각종 공연과 전시, 역사투어, 체험행사 등을 통해 만났는데 “몰랐던 부산의 역사를 오늘 알게 됐다.”, “독특한 콘셉트로 매우 새롭고 신선하다.”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2016. 6. 3. ~ 6. 4.

창작뮤지컬 ‘검정고무신’ 감동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행사는 6월 3일 오후 7시 임시수도 정부청사(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 특히 축하무대인 창작뮤지컬 ‘검정고무신’과 5인조 록밴드 장미여관의 공연은 감동과 열광으로 행사장을 후끈 달구었다. ‘검정고무신’은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시련과 좌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시의 애환을 담은 대중가요 선율로 풀어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겪었던 70대 이상 노년층들은 그 시절을 회상한 듯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손수건으로 눈물을 째어내기도 했다. 장미여관의 공연은 관람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리드보컬 육중완이 “우리가

누구~?”라는 멘트와 함께 무대와 객석을 중환무전하며 ‘오빠라고 불러다오’를 열창하자 관객들도 ‘오빠~’라고 환호하면서 스탠딩ovation으로 화답하는 등 공연을 마음껏 즐겼다.

베라 줌고 개떡 먹고… 피란 체험

○…이번 행사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임시수도기념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꾸미기와 베라 줌기, 임시수도기념거리 일원에서 펼쳐진 부산전차 탑승과 주먹밥·보리개떡 등 피란음식 시식 등은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를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가족과 함께 온 박현문 씨(40·남구 용호동)는 “부산에 오래 살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다는 사실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 아이들과 부산전차도 타고, 옛날 교복도 입어보고, 주먹밥·보리개떡도 먹어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부산의 현대사를 다시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즐거워했다.

역사투어, “멋진 야경, 멋진 추억”

○…부민동 임시수도 정부청사 일대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대를 도보로 둘러보는 역사투어는 총 32회에 걸쳐 진행됐는데 신청 접수 며칠 만에 모두 마감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역사투어는 초·중학생 자녀에 노부부

남까지 동행하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참가자들은 문화해설사의 흥미진진한 가이드와 멋진 부산 야경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역사투어에 참가한 박도형 씨(사하구 당리동)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정작 부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없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도시인지 되짚어볼 수 있어 정말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들던 비석문화마을과 멋진 부산 야경도 보고,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게 해줘서 오히려 감사하다.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응식 사진전 관람객 줄이어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전시 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한국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현장을 누볐던 부산 서구 출신 임응식 작가(1912~2001) 사진전이 단연 돋보였다는 반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란수도 부산의 초상을 사실주의적인 앵글로 포착해 낸 작품 40여 점이 선보였는데 관람객들은 대표작 ‘전쟁고아’(1950년), ‘구직(求職, 1953년)’ 등 전쟁이 빚어낸 슬픈 풍경 앞에 발길을 멈추고 눈길을 떼지 못했다.



사진으로 본 피란수도 부산 夜行



‘피란수도 부산’, 세계유산 등재 첫발

市, 잠정목록 25건 선정… 서구 5건



‘피란수도 부산’과 관련 있는 건축물과 문화자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부산시는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높고 유네스코 기준에도 부합하는 18개소 25건의 건축물과 문화자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10일 소유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전까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피란민 수송시설이었던 부산전차 △피란수도 대통령 집무공간이었던 경무대(현 임시수도 기념관·사진) △피란수도 임시정부청사(현 동아대 석당박물관) △피

란수도 상공부 건물(현 한국전력 중부산지점) △피란수도 고등학교유시설인 부산제1상업학교(현 부경고) 등 5건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할 계획이며, 오는 2023~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 1 역사투어 참가자들이 초창동 천마산에코하우스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부산형 일대의 야경을 즐기고 있는 모습
- 2 한국전쟁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부산 서구 출신 임응식 작가의 사진전
- 3 개막 축하공연인 5인조 록 밴드 장미여관의 열정적인 무대에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동참으로 화답하고 있다.
- 4 개막식에서 초연된 창작뮤지컬 ‘검정고무신’ 공연 모습
- 5 가장 인기 있었던 체험행사인 검정고무신 꾸미기 모습
- 6 방문객들이 피란시절 음식인 주먹밥·보리개떡을 시식하고 있다.
- 7 임시수도기념거리 일대에 재현된 피란시절 거리 재현 퍼포먼스 모습

바다 위를 걷다, 송도구름산책로

올 여름 송도해수욕장의 핫이슈는 송도구름산책로(오른쪽 사진). 지난해 6월 1일 등대구간(104m)에 이어 올해 6월 1일 잔교구간(193m)까지 365m(연결구간인 거북섬구간 68m 포함) 전 구간이 개통됐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산책로로 유려하게 뻗어나간 빼어난 곡

선미는 보는 사람을 감탄하게 한다. 송도구름산책로에서는 바다 한 가운데서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푸른 파도가 일렁거리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바닥 일부를 강화유리와 디자인그레이팅으로

설계해 놓이거꾸 못지않은 짜릿한 스릴감도 맛볼 수 있다.

또 연결구간인 거북섬에는 짧은 어부와 용왕의 딸 인룡(人龍)의 애뜻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청동조각상, 거북이머리인 장수굴, 알을 깨고 나오는 거북이 등 다양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하나 재밌는 스토리텔링을 간직하고 있어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너희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만 하니?

송도, '킬러 콘텐츠' 로 해수욕장 패러다임 바꾼다!



송도해안볼레길, '힐링' 의 시간

송도해수욕장의 또 다른 매력은 해수욕장과 연결돼 있는 총 연장 10km의 송도해안볼레길(오른쪽 사진).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충분한 곳이다.

송도해안볼레길은 남쪽 바다길(현인광장~암남공원 입구), 태고의 숲길(암남공원 일주), 아홉구비길(암남공원 입구~현인광장), 추억 속의 길(송도해수욕장) 등 총 4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길 닿는 곳마다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남쪽 바다길'은 부산 갈매길 4코스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송도반도 탐방로와도 겹치는 구간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떠난 듯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다대포층의 퇴적암, 화산활동으로 인한 화쇄류암과 현무암, 이들이 관입한 유문암 등 다양한 암석과 함께 그 속에 숨겨진 공룡 골격과 알둥지화석, 석회질 고도양 등의 지질기록을 수려한 한려해상의 경관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또 '태고의 숲길'로 조성된 암남공원 일주코스는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출입이 통제되다가 지난 1996년 개방됐는데 500여 종의 해양식물과 야생화 등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자연생태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소나무가 울창해 산책로를 따라 삼림욕을 즐길 수 있으며 곳곳에 암석으로 조각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국내 유일 해상다이빙대 '첨봉'

송도해수욕장 동편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송도해상다이빙대(아래 사진)는 올 여름에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송도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 2013년 옛 해상다이빙대가 있던 자리에 복원됐는데 마스크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지난해 여름에는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송도해상다이빙대는 인근 거북섬에서 작안해 어미거북이(높이 5m)와 아기거북이(높이 3m) 모양으로 만들어져 자신에게 맞는 높이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데 해상다이빙대까지 약 70m 가량 헤엄쳐가야 이용이 가능하다. 해상다이빙대는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유아전용 해수풀장 '아이사랑 존'

송도해수욕장 동편 백사장에는 올 여름에도 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아 전용 해수풀장인 '아이사랑 존'(위 사진)을 마련해 무료로 운영한다.

서구는 송도해수욕장을 다른 해수욕장과는 차별화된, 가족 단위 피서휴양지로 만들기 위해 매년 '아이사랑 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젊은 부모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서구는 '아이사랑 존'에 50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해수풀장(가로 10m, 세로 10m) 3식과 페달보트 10대를 갖추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매일 해수를 교체하는 등 안전과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곳에는 유치원생(7세) 이하 어린이만 입장이 가능하며, 운영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현인가요제 등 공연행사도 풍성

송도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특설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려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먼저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밤에는 '이번 여름에는 즐겨'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연이 개최된다. K-pop 여성댄스팀 'Limit 댄스', 통기타밴드 '이투벤드'의 공연과 마술공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2016년 여름바다축제 및 제12회 현인가요제'가 개최된다. 현인가요제(위 사진)에서는 우리나라 트로트가수들이 총출동해 귀에 익은 대중가요를 통해 한여름

밤의 추억과 낭만을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현인가요제 참가자들의 뜻뜻하고 열정적인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



카약 등 해양스포츠 무료 체험

송도해수욕장 카약체험장(100대)에서는 무료로 카약체험(오른쪽 사진)을 할 수 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송도마린아카데미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카약·윈드서핑·SUP 등의 기초 및 실습, 동력보트(모터보트·바나나보트 등) 체험이 가능하다. 단,

학교·직장·단체·아파트 등 10명 이상 신청자에 한한다. 선착순 1,200명.

참가 희망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송도해양레포츠센터 홈페이지나 한국해양소년단연맹(717-2883)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문화관광과 240-4083)



서구칼럼

서구에 임응식기념관 건립을



박희진
사진가·동주대학교 교수

피란수도 부산의 밤을 거닐어본다는 것, 상상만 해도 쩌한 감정이 솟구친다. 부산은 한국전쟁 1129일 중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역할을 했다. 특별히 서구는 임시수도 정부청사와 대통령관저를 비롯해 입법·사법·행정기관이 위치했던 임시수도의 중심으로서 격동

의 현대사를 남긴 곳이다. 지난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서구에서는 '피란수도 부산 야행(夜行)'이라는 행사가 개최됐는데 우리 현대사를 재조명해 보고, 근대역사의 보존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많은 행사 가운데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에서 개최된 '한국전쟁 종군기자 故 임응식 사진전'은 단연 돋보였다. 임응식은 임춘화의 4남2녀 중 막내로 1912년 부산 서구 동대신동 176-2번지에서 출생했으며 부민초등학교(당시 부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38~1943년까지 부산 지방체신국에서 근무한 임응식은 해방 후 1946년 15명의 회원으로 부산광화회를 창립했으며 이후 부산예술사진연구회로 확장시켰다. 부산 최초의 사진현상소인 '아르스

(ARS)'를 운영하며 사진 소식지도 펴내기도 했는데 한국 사진의 새로운 장이 부산, 그것도 서구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1954년 서울로 이주할 때까지 42년이나 부산 서구에서 활동한 사진가 임응식은 한국전쟁 종군기자로 부산에서 출발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면서 처참한 전쟁의 기록을 사실적으로 남겼다. 전쟁 중이던 1952년에는 부산에서 한국사진작가 협회를 결성하고 창립했다. 또한 부산으로 피란 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최초로 사진과목을 신설하고 강의했으며 서울로 이주한 이후 1970년대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 정년퇴임했다. 한국 사진의 역사에서 임응식의 존재는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진사에 있어서 유일한 사진사조인 '생활주의 리얼리즘'을

부산에서 창시했으며 그것은 한국전쟁과 이후 처참하게 남겨진 전쟁의 피해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내면의 감정까지도 사진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임응식의 자각에서 비롯됐다. 서구에서 태어나 역사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한국사진을 태동시킨 임응식은 서구, 부산 아니 한국 문화 예술의 우뚝 선 자랑거리이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학창시절 사진가 임응식이 명예교수 신분으로 혼신의 교육열을 다할 때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해 직접 가르침을 받아 사제지간의 정을 간직하고 있다. 평생 검정 빨레 안경에 온화한 미소로 제자들을 지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회상된다. 한국사진의 성지가 될 사진가 임응식의 기념관이 서구에 건립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감히 외쳐본다.

내 삶의 활력소 대신공원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신공원이 있다. 걸어서 30분 거리다. 삶이 무료하다 싶을 때 나는 대신공원을 찾아 천천히 산책을 한다. 대신공원은 구덕산(556m)과 엄광산(504m) 계곡에 자리 잡은 도시 속의 공원이다. 수령이 70년 넘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어 삼림욕하기에도 좋다. 공원이 들어선 산의 정상에는 옛날 통신수단인 봉수대가 있는데 부산항과 영도가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아주 좋다. 내가 대신공원을 즐겨 찾는 까닭은 오래된 나무가 울창해서 산책의 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편백나무가 즐비한 숲을 거닐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어깨를 짓누르는 갖가지 일상의 욕망이나 번민이 사라지는 기분을 맛본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나 홀로 혹은 가족과 같이 대신공원을 찾아 참살이(웰빙)의 기쁨을 누리고 치유(힐링)의 보람을 얻는다. 편백나무가 열병식을 하듯이 뻗은 숲 사이로 난 산책길을 걸으면 상쾌한 피톤치드 향이 풍긴다. 피톤치드를 강력히 풍기는

편백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빛깔을 띠며 세속의 욕망에 찌든 나의 심신을 위로해 준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에서 받게 되는 크고 작은 번민거리 따위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다. 그리고 숲에서 나는 시원한 바람소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화음,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공원을 걸으면서 새삼 숲이나 나무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나 은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내가 생활하는 주변에 이처럼 멋진 공원이 있다는 사실에 큰 행복을 느낀다. 이런 공원을 만든 앞선 세대가 한없이 고맙게 여겨진다. 그리고 산 푸르고 물 맑은 금수강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다. 대신공원을 자주 찾아 자연의 혜택을 확실히 누리며 건강을 제대로 다져 평균수명 100세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싶다. **성오용(부민동)**



아들과 찾은 송도구름산책로

송도해수욕장 옆에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생겼다. 이를 하여 '송도구름산책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곡선형 해상산책로로 길이가 365m나 된다고 한다. 지난 6월 1일 개통 이후 이곳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나도 얼마 전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다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은 생기 있어 보였고, 환하게 웃으며 추억의 한 컷을 담은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출렁다리라고도 불리던 구름다리를 찾아 송도해수욕장으로 오곤 했는데 이제 청년이 된 아들과 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어렵듯이 옛 생각도 났다. 나무다리로 만들어진 구름다리를 건너며 무섭다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는데 구름산책로에는 다리 중간에 투명유리로, 혹은 철망처럼 구멍이 뚫린 길이 있어서 은근 무서웠다.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고 푸른 산이 우리를 안아주고 발 아래 파아란 바다는 찰랑이는 파도와 잔잔한 돌들을 다 보여주었다. 새하얀 다리의 색깔은 마치 구름을 연상하게 했다. 거북섬에는 젊은 어부와 용왕의 딸인룡의 청동조각상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둘의 사랑을 엮어주려는 듯 커플들이 한 가운데 서서 서로 손을 뻗어 이어주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가족끼리 모여앉아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도 너무 정겨워보였다. 옛날과 지금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도 송도에 대한 기억을 찾을 수 있어 반가웠다. **조순애(명예기자)**



독자투고 받습니다

서구신문은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각종 제언이나 시, 수필, 감상문, 편지,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 소정의 원고료(문화상품권)를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성동4가) 서구청 문화관광과 서구신문 담당자 앞 prepine1@korea.kr(이메일) • 문의 : 문화관광과 240-4074

민관 협력으로 洞 복지기능 강화

초장동, '우리 동네 구석구석 살펴보기' 등 추진

올해 복지동으로 선정된 초장동이 복지사 각지대 발굴과 복지안전망 구축 등 동(洞)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에 바탕을 둔 지역특화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16일 천마산에코하우스에서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동복지상담실은 분기별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관련 상담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구청·서구보건소 등 공공기관(부서)과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안나헤어숍·한마음행복센터 다문화봉사자 등 민간 기관·단체까지 총 13개 기관(부서)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서비스 상담 및 신청, 직업선호도 검사 및 구직등록, 건강검진 및 치매검사, 노인복



사진은 지난 6월 16일 열린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모습.

지용품 체험 및 대여, 각종 법률상담 등 분야별로 상담 및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살펴보기'를 운영했다. 이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등 유관 단체들이 대

거 참여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순찰구역을 정해 쓰레기나 신문·우유 등이 문 앞에 방치돼 있거나 최근 출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구 등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여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순찰과정에서 관내 상점 등 민간 자원을 발굴해 복지 대상자와 연계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포착해 해결하는 등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

초장동은 앞으로 유관 단체 뿐 아니라 관내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기관이나 학교 등과도 연계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 가능한 자원을 찾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초장동 240-6571)

“어, 폐공가 자리 맞아?”

동대신2동, '게릴라 가드닝'으로 꽃단장



사진은 지난 6월 8일 실시된 동대신2동 '게릴라 가드닝' 현장.

각종 쓰레기투기로 동네 골칫거리였던 동대신동 2가 77-83 폐공가 철거지가 꽃향기 그윽한 쾌적한 주민 쉼터로 변신했다.

동대신2동이 지난 6월 8일 주민자치회, 닥발골 협동조합 관계자 등 주민 30여 명과 함께 실시한 '게릴라 가드닝' 덕분이다.

이 사업은 부산시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의 지원을 받아 도심의 버려진 자투리땅에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화단을 만드는 것이다.

동대신2동은 사업소로부터 여름초화 3천600본을 지원받아 올해 총 6개소에 게릴라 가드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동대신2동 240-6434)

안전·쾌적한 여름 보내세요

71개 경로당 환경개선

서구는 관내 71개 경로당에 대해 각종 수리·수선 등 대대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장마와 무더위에 대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5천800여 만 원을 투입해 지난 5월 말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6개 경로당은 방수작업을 실시해 장마철에도 누수 걱정을 하지 않게 됐으며, 19개 경로당은 노후 방충망을 교체하거나 새로 달아 여름철 모기 등 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경로당들도 낡고 오래돼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안팎을 새로 도색하거나 도배나 장판이나 문·창호, 보일러, 싱크대, 에어컨 등 낡고 오래된 시설이나 설비를 말끔하게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문의 가족행복과 240-4372)

“주민이 만들었어요”... 이색 마을지도 호평

남부민1동 주민자치회

남부민1동 주민자치회(위원장 박사홍)가 지역 홍보를 위해 만든 마을지도 '남일이네 마을여행'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지도는 오랫동안 거주해 마을을 소상히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마을지도 아카데미'에서 6개월 동안 머리를 맞댄 끝에 탄생했다. 이 지도에는 현재 남부민1동에 있는 주요 도로나 건물,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양초공장, 70계단길, 동양극장, 건빵공장, 미도파레코드 등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마을의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 그리고 향후 들어설 시설 등도 포함돼 있다. 한 마디로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색다른 지도다. 게다가 지도에는 남부민1동의 애칭인 '남일이네' 가족



사진은 마을지도 '남일이네 마을여행'.

들의 일상이 일러스트로 곁들여져 정감을 더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도를 접이식으로 1천 장을 제작해 주민센터, 어린이집, 남일이네 사랑의 생선가게 등을 통해 배부하고 있다.

(문의 남부민1동 240-6604)

<유료광고>

동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한국어교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3급)
일반과정	- 외국어교육, 전문가과정, 자기계발 - 자격증 취득, 전통국악, 음악교육 - 컴퓨터 (MOS자격증) 취득과정
미용 아카데미	- 이·미용장 국가자격증 대비반 - 이·미용사 국가자격증 대비반
교원 직무연수	-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골프, 배드민턴, 서양요리, 제빵, 커피 등)
학점인정 시간제등록	- 아동학 (보육교사 2급) -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2급) - 미용학 (4년제 미용학사) - 기타 다양한 전공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http://cedu.dongju.ac.kr Tel. 200-3244, 3299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줄이세요

-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 지나친 눈요기 장식 줄이기, 남은 음식 포장해 주기
 - 반찬은 조금씩 차려내고, 반찬 가짓수 줄이기
 - 먹을 만큼만 주문, 먹지 않는 반찬 미리 반납하기
 -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해 적정량만 조리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과일껍질은 말려서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 복숭아·살구·감 등의 씨
 -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전복·멍게·게 등의 껍데기, 복어 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짰 후, 부피가 큰 식품은 잘게 썰어서 배출
 - 규격 수거용기 사용, 적정물량 배출(뚜껑 닫히게) ⇒ 반드시 집 부착
- 문의 : 청소행정과(240-4451)

2016 희망나래단 워크숍 개최



서구는 지난 5월 31일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동(洞) 지역사 회보장협의회 위원, 복지통장, 통장 및 복지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희망나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구드림스타트, 부모교육 실시



서구드림스타트는 지난 5월 27일 드림스타트 대상 학부모 및 주양육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아동학 대예방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 교통캠페인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회장 조양환)는 지난 6월 1일 총 무동 교차로 일원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무질서 행태개선 범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동대신2동, 어르신 1일 나들이 행사



동대신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윤종성)와 새마을부녀 회(회장 정명자)는 지난 5월 19일 어르신 70여 명을 초청해 경 남 남해 독일마을 일원에서 1일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서대신3동, 동민단합대회·선진지 견학



서대신3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양창환)는 지난 5월 29일 단체 원과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 함양·창녕, 경북 고령 등지에서 동민단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부민노인복지관 하모니카반 사제 공연



부민노인복지관 하모니카반 최봉선 강사와 수강생들은 지난 5 월 31일 부산시민회관에서 열린 '통기타와 하모니카의 선을 속 으로'라는 무료공연에 함께 참여해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서구어린이집연합회, 물품공유장터



서구어린이집연합회(회장 황정순)는 지난 5월 21일 학부모로 부터 기증받은 물품으로 어린이물품 공유장터를 운영했으며, 수 익금 60여 만 원은 서구결식아동협의회에 전달했다.

서구여성자원봉사회, 성품 전달



서구여성자원봉사회(회장 서정숙)는 지난 5월 23일 관내 여 성 사회복지시설에 밥솥 등 50만 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전달 했다.

동대신3동, 산복도로 선진지 견학



동대신3동 산복도로 주민협의회(회장 신태철)는 지난 5월 24 일 산복도로 르네상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동구 이바구길 과 중구 산리마을 등에서 견학을 실시했다.

구덕골나눔이, 어르신 효 나들이



서대신4동 구덕골나눔이(회장 홍국열)는 지난 5월 17일 관내 홀몸어르신 33명을 초청해 전남 여수 일원으로 효 나들이를 다 녀왔다.

워킹맘 자녀진로코칭 프로그램 운영



서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5월 28일 취업자 사후관리사 업인 '워킹맘 자녀진로코칭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업여성의 자 념양육 부담완화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서구-KB국민은행, 나눔활성화 협약



KB국민은행 충무동지점(본부장 김종광)은 지난 6월 14일 서 구청과 나눔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을 위해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기탁했다.

우영회·산상교회, 집수리 봉사활동



아미동 우영회(대표 김창영)와 산상교회 우리봉사단(대표 백 문선)은 지난 5월 2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가정에서 도배 및 장판 교체, 전기수리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대신1동, 부민산 일원 환경정비



서대신1동은 지난 6월 10일 통장·주민자치위원·새마을부녀회 원 등 29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마철 호우에 대비해 부민산 일원 배수로 퇴적물 제거 등 5개소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부민동 주민자치회, 어르신 효 나들이



부민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이재선)는 지난 5월 20일 관내 어 르신 80명을 초청해 경남 통영·고성 일원에서 효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서구 적십자봉사회, ‘효 실천의 날’ 행사 훈훈

대한적십자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회장 이다경)가 지난 5월 31일 ‘희망풍차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행사를 마련해 주위를 따뜻하게 했다.

희망풍차는 대한적십자사가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이웃을 위한 새로운 희망 만들기 캠페인이다. 주 1회 이상 반찬 전달, 목욕 봉사 등 기본서비스를 비롯해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이 맞춤형 통합서비스다.

서구지구협의회는 이날 희망풍차 결연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회원들이 직접 끓인 삼계탕과 다과 등을 대접했다.

또 초청가수 공연, 부채춤 공연 등도 준비해 즐거움을 안겨주었고, 노래방 시간에는 신청곡을 받아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흥겨운 한마당잔치를 벌였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기념품, 간식거리 등을 포장해 선물로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은 “멀리 있는 딸보다 낫네.”,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꼭 불러 주يس.”라며 적십자봉사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다경 회장은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



사진은 지난 5월 31일 대한적십자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 주최로 열린 ‘희망풍차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 실천의 날’ 행사 모습.

다. 앞으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주민들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무과 240-4124) (김미립 명예기자)

전몰군경 미망인을 찾습니다

- 대상 :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처)
- 기간 : 연중
- 문의 :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463-5933, 010-6300-3929)



사진은 ‘사랑의 띠잇기’의 실버카 전달식 모습.

“할매, 차 뽑았데이~”

사랑의 띠잇기, 71명에 실버카 지원

올해 77세인 김모 할머니(암남동)는 지난 5월 31일 (사)부산서구사랑의 띠잇기봉사단후원회(이사장 김허남)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일명 ‘할머니 유모차’로 불리는 보행보조차 ‘실버카’다. 지병인 관절염 때문에 보행이 불편한 김 할머니에게 필요하고, 꼭 장만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국가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형편이라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다.

김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 실버카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내심 부러웠다. 동네방네 나도 차 뽑았다고 자랑하고 싶다.”며 행복해했다.

이날 김 할머니 등 총 71명의 어르신들이 실버카와 지팡이를 선물 받았다. ‘사랑의 띠잇기’는 ‘저소득가정 생활용품 지원사업’으로 올해로 8년째 계속하고 있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4315)

■무료 영화상영 안내

영화제목	상영 일시	상영 장소	문의
장수상회	6. 29. (수) 15 : 00	서구노인복지관	240-3541 ~5
명량	6. 29. (수) 14 : 30	부민노인복지관	240-3532

아미동 새마을단체, 소외계층 김치 전달



아미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종덕)와 새마을부녀회(회장 김호숙)는 지난 6월 10일 홀몸어르신 50명에게 행복마을농장에서 직접 키운 열무로 담근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남부민1동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



남부민1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사홍)는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경북 일원에서 주민자치 선진지 및 우수 마을공동체 견학행사를 가졌다.

초장동 주민자치회, 어르신 나들이



초장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손창일)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난 5월 17일 경북 경주시 일원에서 어르신 70명을 초청해 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남부민2동, ‘샐디 울타리 비전’ 선포



남부민2동 지역복지보장협의체(위원장 이효선)는 지난 5월 17일 복지안전망 확립을 위한 ‘샐디 울타리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마을 만들기애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총무동,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캠페인



총무동 주민자치회(위원장 김미순)와 아름다운골목길가꾸기사업단(단장 권오출)은 지난 6월 2일 총무소공원에서 주민·단체원 등이 참가해 ‘주민참여 마을가꾸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매월 둘째 수요일 ‘송도 청결의 날’



송도관광번영회와 송도상인연합회는 해수욕장 개장·구름산책로 완전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매월 둘째 수요일 환경정비, 방역활동 등 ‘송도 청결의 날’ 행사를 갖는다.

마을지기 소외계층 집 손본다

방충망 수리·노후 전등 LED燈 교체 무료 실시

서구는 6월부터 초장동 마을지기사무소를 활용해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하절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찢어진 방충망을 수리 또는 교체하고, 노후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마을지기사무소는 단독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거주 주민들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소규모 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각종 공구 대여, 24시간 무인택배서비스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출장비(5천 원)나 재료비(1만5천~

2만5천 원 범위 내)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초장동 주민센터 1층에 문을 열었는데 4월 말 현재 집수리 건수가 290여 건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하절기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마을지기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무료로 사업을 진행한다. 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방충망 신규 설치나 대규모의 전등 교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겨울에는 50여 가구에 대해 단열재(에

어 캡) 시공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다.

서구는 집수리 지원을 요청하는 소외계층이 많은 의견에 따라 하절기나 동절기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봉사단체(반딧불) 등과 연계해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부산시 도시재생 패러다임과 맞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이 마을지기사무소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사업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창조도시과 240-4234)

베란다 옥상텃밭 만들어요

텃밭상자 구입비 80% 지원



“서구 선진 복지행정 배우러 왔어요”

타 지자체 잇따라 방문... 잘 짜인 ‘민관 협력’에 감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복지행정상’에서 부문별 대상을 비롯해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복지정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서구에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3일 경남 거창군의 복지팀 20여 명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서구청을 찾았으며, 이에 앞서 경기도 의왕시와 충남 서천군 등에서도 방문하는 등 견학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서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洞) 복지허브화의 추진 방향 및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인 ‘희망나래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서구가 일찌감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나눔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개별 사례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놀라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동



사진은 지난 6월 3일 서구청을 방문한 경남 거창군 복지팀.

별 지역의제 및 특화사업 추진과 동 나눔회·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등 민간 자율 단체들의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다.

거창군 거창읍 이호현 주민생활담당은 “지난 2005년부터 민관이 복지에 대한 가치를 공유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다.”고 견학 소감을 밝혔다. (문의 생활지원과 240-4332)

작은 화초 몇 개가 전부였던 아파트 베란다가 초록의 텃밭(사진)으로 변신을 했다. 서구청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2016년 도시 옥상텃밭 조성사업에 참여해 만든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텃밭상자 구입대금의 80%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날 모종을 심었을 때는 상추와 치커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물을 듬뿍 주면서도 ‘애들이 제대로 살까’ 걱정했는데 다음날 아침 텃밭상자를 봤더니 전날과는 완전 판판이었다. 잎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쭉 뻗은 게 ‘야, 신기하네. 이 맛에 텃밭을 하는구나.’ 싶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에 참여한 덕분에 도심 속에서 채소를 가꿀 수 있게 됐다. 정성껏 직접 가꾼 유기농 먹거리를 식탁에 올릴 수 있고, 채소 기르는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안정감과 성취감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이웃과 나눠먹으면 삭막한 이웃이 아닌 정을 나누는 따뜻한 이웃이 될 것 같다. (장해봉 명예기자)

올 여름 알찬 강좌 놓치지 마세요

★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모집 기간	수강료
독서-음악 융합형 정서교육 <문학나무, 창의열매>	7. 25. ~8. 24. 월·수 10:00~12:00	평생학습관 제2강의실 ☎240-4041	초등 2~5년	6. 22. ~ (선착순)	1만 원 (재료비)
내 손안에 펼쳐지는 상상력 <오감 특독 모형로봇 제작과정>	7. 25. ~8. 8. 월·수 14:00~16:00		초등 1~6년		2만 원 (재료비)

★ 희망을 꿈꾸는 닥밭골 마을학교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모집 기간	수강료
수학놀이교실	8. 9. ~8. 30. 화 14:00~15:00	닥밭골 북카페 ☎070-4243-1113	초등생	7. 1. ~7. 31.	무료
벽화교실	8. 9. ~8. 23. 화 15:00~17:00		초등생 및 가족 단위		
독서교실	8. 11. ~9. 1. 목 14:00~15:00		주민 누구나		
영화교실	8. 6. ~8. 27. 토 10:30~12:30				

★ 암남동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모집 기간	수강료
도전! 나도 바리스타 (진로체험교실)	7~8월 (5회) 수 13:00~15:00	암남동 주민센터 1층 송도바다작은도서관 ☎240-6664	중·고생	6. 27. ~ (선착순)	1만 원 (재료비 5회)

★ 2016년 ITQ자격증 특강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모집 기간	수강료
ITQ자격증 (한글)	7. 25. ~8. 12. 10:00~12:00	서구 전산교육장 (본관 1층) ☎240-4301	만 60세 이상 어르신	6. 20. ~7. 15.	무료
ITQ자격증 (파워포인트)	7. 25. ~8. 12. 13:00~15:00				
ITQ자격증 (엑셀)	7. 25. ~8. 12. 15:30~17:30				

★ 부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명	운영 일시	운영 장소	모집 대상	모집 기간	수강료
여름방학 아동문화프로그램 '다함께 놀자! 세계 한바퀴 in 브라질'	8. 8. (월) 8. 10. (수) 8. 12. (금)	복지관 1층 강당 ☎257-9404	서구 초등생 (3일 모두 신청자 우선)	6. 27. ~7. 15. (선착순)	무료 (교재비 본인부담)

3대가 건강한 서구 만든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우리는 3대 家왕' 추진

서구가 임신부와 영유아는 물론 조부모, 남편에 이르는 3세대 이색 통합 건강증진서비스인 '우리는 3대 家왕'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임신부들의 서비스 욕구와 조부모의 영유아 양육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 5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서구는 우선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해 임신기에는 임신부 출산교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아토피천식 건강교실,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출산기에는 체력회복과 산후비만 예방을 위한 리턴 운동교실을 비롯해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모유수유 클리닉, 이유식과 마사지 수업, 출산 및 육아관련 도서 대여, 유축기 대여 등 산모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산부와 영유아를 위해서는 전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우울증검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조부모에게는 연령별 육아법과 영유아 마사지, 건강간식 만들기 등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부모 본인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교실, 치매 및 우울증 예방교실도 문을 열 계획이다.

남편(예비아빠)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아빠의 역할과 아빠가 돕는 모유 수유, 기저귀 갈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영양보충식품을 활용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과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줌으로써 한국어 사용 환경을 만들어주는 한마음정음사업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3대가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다.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수기 공모, 자조모임 운영 등 참가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해 더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서구보건소 240-4882)

■ 3대 家왕 프로그램

시기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기	문의
임신 전	남편(예비아빠)	스마트 대디	7월, 10월	240-4869
	조부모	조부모 육아교실	5월, 10월	240-4869
	임산부	임산부 출산교실	4월, 10월	240-4876
임신기	임산부, 조부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실	6~11월	240-4904
	조부모	치매예방교실	하반기	240-4912
	임산부, 영유아부모	아토피천식 건강교실	6~11월	240-4903
출산기	임산부, 영유아부모	영양보충식품을 활용한 요리교실	5월, 10월	240-4862
	산부	리턴 운동교실	6~9월	240-4848
	산부	우리 아기 건강하게 키우기	6월, 9월, 11월	240-4869
전 과정	산부	유축기 대여	연중	240-4969
	초산부, 영유아	찾아가는 초산부, 영유아건강관리	연중	240-4814
	임산부	우리 가족 지키기! 임신부 금연지도자교육	6~11월(월 1회)	240-4903
전 과정	임신예정자, 임신부 가족	출산 및 육아관련 도서대여사업	연중	240-4869
	다문화가정, 장애 영유아	한마음정음사업	하반기	240-4869

“싫어요, 그대의 담배연기~”

금연구역 송도해수욕장 '금연벨' 등장

금연구역인 송도해수욕장(수변공원 포함)에 흡연자 발견 시 누르면 금연 안내방송이 나오는 이른바 '금연벨(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이 설치돼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금연벨'은 해수욕장 한 가운데에 위치한 임해행정봉사실 건물 1층 남자화장실 입구와 인근에 설치된 퍼즐러 등 2곳이다.

'금연벨'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고 금연벨을 누르면 옆에 설치된 금연알림단말기에서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흡연을 삼가주시

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흘러나와 자연스럽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게다가 안내방송이 5초 뒤에 나오도록 설정돼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돼 있다.

서구보건소는 금연구역 안내방송시스템이 효과가 있을 경우 버스정류소 등 다른 다중이용 장소에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서구보건소 240-4903)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작성
- 지원 내용 : 의료비, 장례비
- 신청 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eiti.re.kr/wat/page11.html) 참조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relief@keiti.re.kr)

건강칼럼 대장암



조 홍 재
외과 부교수

대장암은 대장 및 직장에 생긴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암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평균 수

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와 식습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의 서구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장암의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특징적인 증상은 없다. 평소와 달리 변비나 설사가 새로 나타나거나 변비가 있다 갑자기 더 심해질 때, 아랫배가 자주 아플 때, 대변에 피가 묻거나 섞여나올 때, 대변을 본 이후에도 덜 본 것 같은 잔변감이 있을 때는 한 번쯤 대장암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외에도 암의 일반적인 증상인 체중 감소, 식욕 감퇴, 원인 미상의 피로감 또는 빈혈도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상당히 진행된 암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자각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대장암은 직장수지검사를 포함한 진찰, 대장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등으로 진단하며, 대장암으로 판명되면 CT(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통해 병의 진행 정도를 평가한 후 치료방법을 정하게 된다.

대장암은 수술적 치료가 기본이며, 다른 부위의 암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로는 대장내시경을 통한 치료로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도 조기에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암일 때에는 수술 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재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도 하게 된다.

최근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50%를 넘어갈 정도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항암제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연관된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피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국가 암검진 등 정기검진(대변 잠혈 검사, 대장내시경)을 통해 미리 용종을 제거하거나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고등어 만선 꿈 안고 힘찬 출항

대형선망, 안전조업·풍어기원 대규모 초출어식

부산 시어(市魚)인 고등어를 주로 어획하는 근해어선(대형선망어선)의 2016년 초출어식(初出漁式)이 지난 5월 25일 남항 서방과제에서 수산업계 관계자와 어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와 대형선망수협(조합장 임준택) 주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 행사는 고등어 선단의 안전조업과 풍어기원은 물론 지역 전통산업인 대형선망어업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초출어식에서는 안전기원문 낭독에 이어 대형선망 소속 140여 척이 군악대 연주와 참석자 환송 속에 일제히 첫 출항에 나서는 퍼포먼스를 펼쳐져 일대 장관을 연출했다. 부산지역 대형선망어선들은 매년 한 달간의 자율 휴어기를 가진 뒤 제주도 연근해와 서해로 출항해 연중 조업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현장에는 초출어식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대형선망어업 홍보관이 마련됐으며 고등어가공식품 시식 및 판매 등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임준택 조합장은 "매년 초출어식 행사를 개최해 1천700여 어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대형선망어선의 안전조업과 만선을 기원함과 동시에 고등어를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화 방안을 강구해



사진은 지난 5월 25일 대형선망수협 소속 어선들이 '2016년 초출어식'이 끝난 뒤 첫 출항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이 행사를 부산의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대형선망어업 250-2471)

일.자.리.정.보(www.bsseogu.go.kr)

(2016. 6. 16. 기준)

사업장명	근무지	모집직종	인원	학력	임금	전화번호
㈜글로벌 오션피서리	암남동	수산물 가공원 (지게차 기능자)	2	무관	시급 7,000원	243-3694
윤 코퍼레이션	동대신동	병원 청소원	2	무관	월 125만 원	010-6621-0304
우리 정비사업소	남부민동	사무보조 (차량운송)	1	고졸 이상	월 160만 원	010-4566-3909
해주수산(주)	암남동	수산물 가공원	10	무관	월 150만 원	231-9062
로드웨이 재가센터	서구 관내	재가 요양보호사	2	무관	시급 7,250원	242-3903
중앙도자기	남부민동	영업 및 배송원	1	고졸	월 165만 원	245-8011
농축산마트	부민동	아간 카운터	1	무관	월 115만 원	010-3578-8535
천지 숯불갈비(주)	동대신동	한식조리사	2	무관	연 2,400만 원	010-9030-9090
명일수산	암남동	경리 사무원	3	고졸 이상	연 2,000만 원	711-7714
세원 요양병원	남부민동	간호사	3	대졸 이상	연 2,800만 원	250-3070
백양수산유통(주)	암남동	수산물가공 및 포장원	5	무관	월 127만 원	714-7234

서구취업정보센터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민들을 돕고 사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곳으로 유용한 정보와 취업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구인·구직이 가능하도록 무료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치 : 부산서구청 서관동 4층
- 전화 : 240-6686~7(FAX. 240-6689)

빠르고 확실한 서구신문 광고

- 장기계약 할인혜택
- 12개월 계약시 : 30%
- 6개월 계약시 : 20%
- 3개월 계약시 : 10%

■ 광고문의 : 문화관광과 240-4074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16.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6. 7. 16. ~ 7. 31.
- 납부 장소
 - 전국 은행(CD/ATM 현금·신용카드 납부 가능)
 - ARS납부(☎1544-1414) • 스마트폰 앱 이용 납부
 - 인터넷납부 <http://etax.busan.go.kr> <http://wetax.go.kr>
 - 편의점 납부 • 고지서 가상계좌 납부
- 문의 : 세무과(240-4191~5)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 의무자 : 2016. 6.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6. 6. 16. ~ 6. 30. (15일간)
- 납부 방법
 - 인터넷(<http://etax.busan.go.kr>)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전국은행 CD/ATM기, 통합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고지서 지방세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ARS 지방세납부(☎1544-1414)
 - 스마트폰 앱 이용 납부 • 편의점 납부
- 문의 : 세무과(240-4215)

<유료광고>

학생반 모집!!!

조리와 진학을 원하는 중·고생이나 조리과에 다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반을 모집합니다.

1년 교육으로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저렴한 비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대학진학도 훨씬 쉬워집니다.~~

★ 최고의 합격률로 보답하겠습니다 ★

단체수업반 모집~~~

학교 및 공공기관 단체수업을 원하신다구여? 단체로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1회성 수업도 괜찮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원으로 전화주세요~~~~

서구 음식나라조리학원
☎231-6100(도시철도 자갈치역 2번 출구)

<유료광고>

부산작명소

작명개명 전문·아기이름 전문·상호아호 전문

이름감정무료 · 개명상담무료

좋은 이름 듣기, 좋은 생각하기, 좋은 희망 갖기

작명전문가/소장 정정혜

- 부산전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일본국 대동문화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졸업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졸업
- 구 한일은행 근무
- 여산명리학회 학술위원
- 한국작명가협회 정회원
- 현 부산작명소 소장

좋은이름 평생행복

괴정역 5번 출구 부산은행 6층 051-203-8836

<유료광고>

자동차정비/판금/도장

자동차분야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학교

자동차[국기훈련] 분야 전국 최초 11개월 연속 A기관

>> 국비생 특전 <<

- 교육비,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 전액무료
- 자동차 보수도장(전국 최초)
- 자동차 차체 수리(부산 최초)
- 9개월 과정 필기면제 차체 검정

(주) 불스원 MOU 체결 부산자동차직업학교 ※ 매일 장학금 지원합니다

▶ 훈련대상 : 15세이상 실업자 남녀 누구나 ◀

모집분야	교육내용	출석률 80%이상 월수당 316,000원~ 416,000원 지급	모집기한
자동차정비(판금/도장)	- 자격증 - 현장실무		선착순 마감

※ 재직자·계좌제·자비생 수시모집 ※

부산자동차직업학교

1994

- 찾아오는길 : 부산대학병원(토성역 5번)
- 인터넷접수 : www.nacar.co.kr ☎ 051) 255-3533